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침례교 총신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또 한번의 시작을 다짐하며 새해 첫주일 성찬식으로 출발 오늘 1-5부에배시어

교회는 새해 첫 예배를 성찬식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포도주와 떡을 함께 나눔으로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시 한번 깊이있게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또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은혜를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생명, 그리고 성령을 기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깨끗한 몸과

홀리신 피를 상징한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마다 우리가 할례 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새해 첫 예배를 성찬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른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드라지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삶이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영광의 의미를 아무리 되새겨도 모자라지 않는 것이다. 이 기반이 흔들린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찬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 지나온 날에 행한 잘못에 대해 깊은 회개를 하게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주 앞에 헌신하며 성실할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2회 찬양대지도자 강습회 찬양대원과 독창자를 중심으로 2월 3일-6일까지

교회는 지난 여름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여름의 첫번째 강습회는 지휘자, 반주자 중심으로 열렸던 것에 비해 이번은 찬양대원과 독창자를 위한 성악 강습회로 열리게 된다. 지난 여름의 강습회를 통하여 전국 교회의 찬양대와 찬양대 지도자들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또한 이런 강습회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찬양대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 유익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됨을 확인한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도 모이게 된 것이다. 강습회가 이처럼 큰 호응을 얻는 것은 대성자를 잘 파악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기 때문이다.

오는 2월 3일(수) 오후 3시부터 6일(토) 오후 2시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강습회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음악지도자와 목회자 등이 강사로 수고하게 된다.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 총 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대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성악실기 지도, 이론(음악용론, 초급시창, 중급시창, 화성학, 악식론, 교회음악사, 찬송가학, 호흡과 발성 및 심도 등), 영성술을 위한 수교 2부 예배, 1일 부흥회, 교요찬양집회, 특별기도회, 말씀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1인당 4만원이며 교재와 식사가 모두 제공된다. 참가 접수는 1월 15일(금) 오후 5시까지이고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충현교회 찬양위원회(전화 552-8200 팩스 259, 260)로 하면 된다. 참고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약 80명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년서

새해 여는 그 참빛

새 날을 열고 달려온 한 해의 끄트머리
왕조의 문턱에 나아갈 때인 시간
무거운 어둠이 고이다가 흐른다.

천재지변과 전쟁

지구촌 마구잡이는 이곳 저곳
망각하는 죄의 무게 앞에
이슬처럼 사라지자만 영혼
험한 배를 갈라 걸린 재석소리
노하신 하나님.

그래도

지나지 못한 아쉬운 지난 여름
아름다운 지혜의 손길 영근 사랑
돌아다 보는 모진 풍파에
지지도록 지진 줄줄진 자들이여.

새해는 또 봄야

어김없이 한 해를 마무리에 가득이고
희망의 날개는 자유로 펼쳐진다
저지 않는
예루살렘 그 참빛 다시 찾아 오심은
눈부신 광명 새 날야.

어려울 때 믿었던 나함

이해하는
온갖 대풍양에 끼이지 않는 소망 하나
회개와 용서와 침묵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주님의 날이 예에

저 칼로리 십자가 그늘에서
보혈의 잔으로 죄를 씻는다.

순례대로 시작하는 삶 그리고 신앙
미지와 매기
순종으로 십자가 사랑한 따르라.

하나님과 인간사야 다리되신 예수
금세와 내세, 미래를 바라보다
21세기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지금의 당신때

세상은 종말로 매서운 신년대
이슬로운 평화속에 거하는
우리들만의 족복
하나님의 섭리안에 그 빛이여.

천송가 기적처럼 걸뎀한 천국에기 들려나
이대매를 깨닫자,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광도 흐르는데.

김문섭
(집사, 초동부 교사)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 일시: 1999년 1월 3일 찬양예배 후
- 내용: 98년 결산 및 99년 예산, 교회 회칙 개정안 심의

1999년 청지기훈련 실시

일꾼의 바른 정신과 태도로 무장

1월 13-14일 저녁 7시부터 본당에서

교회는 1999년도를 위해 새로 임명된 교회 일꾼들을 대상으로 청지기훈련을 실시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1년 동안 교회를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및 복음의 증인으로 구비시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1월 13일(수)과 14일(목) 양일 저녁에 걸쳐 청지기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원에서는 복음과 의 관계 속에서 일꾼의 정체성 발견하기, 하나님에 요구되는 일꾼의 바른 정신과 태도로 무장하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증인으로 살아가기 등을 훈련 목표로 하여 일꾼의 소명 및 사명감, 섬김의 원리, 그리고 교회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강의하기로 하

였다. 금번 청지기 훈련의 전체 강의를 김성관 위원목사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수 및 교회학자, 찬양대, 그리고 각 위원회의 일꾼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99년도의 힘찬 출발과 성숙한 섬김을 위해 큰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훈련대상은 제직 전원(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할)과 각 부서 봉사자(교구일꾼,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각 전도회 회원, 청년·대학부 일원 및 회원, 교회직원, 자량관리부, 안내위원, 헌금위원)과 평신도 회당자를 모두 망라했다.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통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열리는 청지기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청지기 훈련 일정표 *

	1월 13일(수)	1월 14일(목)
저녁 7:00-8:00	전체강의 I '소명'과 '사명'	전체강의 II '섬김'의 원리
저녁 8:00-8:20	휴식(간식)	휴식(간식)
저녁 8:20-9:10	충현 5대 목표 강의 I	충현 5대 목표 강의 II

참된 신자가 누릴 복된 나라

(이사야 33:17-24)



김창인 목사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법을 세운 입법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보호하시니 평안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신자들이 사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든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영광 중의 왕을 보게 됩니다

“...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17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절개를 지키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중에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다가 영광 중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날을 기다리면서 성도의 동물을 밭이 쉼돌고 바로 밟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넓은 영토를 누리게 됩니다

“... 광활한 땅을 물려주셨고”(17절)
참된 신자에게는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 사는 복을 주십니다. 넓은 땅을 주겠다는 말씀은 영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는 세상말로 표현하지 못할 넓은 땅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넓은데도 사람도 없고 창우지도 없고 거센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도 없습니다. 창공길을 걸었으니 먼지도 나지 않고 생생강이 사할 흐르니 좌우에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거기에는 아한 짐승도 없으니 끝없는 것이 있습니다.

3. 고생 당하던 과거를 잊말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18절)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신자에게는 과거에 당한 두려운 고생들을 잊말하면서 살게 되는 행복을 주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하여 고생하고 바로 살기 위하여 가난하던 생활을 뒤돌아보고 “전에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었구나.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천국이다” 하며 힘들었던 과거를 잊말하면서 살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작년보다 금년이 나이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나아지는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과거에 어렵고 천대만년 것을 잊말하며 오늘을 천대만년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매를 맞고 관옥에 갇혀도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땅에서의 수고가 아무런 대가도 하늘에서 누릴 영광

을 살 만한 값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런 수고를 많이 하여도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과하시네!” 하며 감격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 안정된 생활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막돌이 영영히 뿔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이지 아니할 것이요”(20절)
장막의 막돌이 영영히 뿔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피난길 일이 생기기 않아서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이 계속되며 영원히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우리의 장막 막돌을 뽑을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평화를 해치고 침략한 사람이 없으므로 평온한 중에 안정된 생활을 살겠습니다.

5.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 넓은 길로 돌리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을 돌리서 참된 신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원수가 해하려고 작은 배는 물론 큰 배를 타고도 그곳으로 갈 수 없다고 평안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참된 신자를 괴롭히지 하여도 강이 돌리면서 처벌할 일은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도탄에 있을 때에 아람군이 도탄이란 작은 산봉우리를 두 겹 세 겹으로 포위하였습다. 엘리사는 다들 날이 밝으면 아람군에게 목이 켜질 운명에 놓였습다. 그러나 엘리사는 대면하지 않았습다. 엘리사의 종은 벌벌 떨면서 “선생님, 큰일났습다. 아람의 군대가 새까맣게 우리를 둘러쌌습다” 하니까,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원, 선생님도 별 거 없습니다. 다 하신다. 내가 눈을 뜨고 아람의 군대를 보았는지 눈을 감고 보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나 다시 한번 눈을 떠 보니 내가 천군만마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다. 이것을 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을 돌리 지기므로 원수가 작은 배를 타고도 못 들어오고 큰 배를 타고도 못 들어옵니다.

(2)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완전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세운 입법자가 되시고, 하나님

님이 친히 왕이 되어 보호하시니 평안합니다(22절).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시면 억울함을 당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법을 따라가면 신실한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면 원수가 손대 수 없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받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비록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감옥에 갇혀도 영혼은 자유를 누릴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욱 침략할 자가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6. 영육이 병들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24절)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병들지 아니하여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영혼에 평화가 있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몸도 든든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근심이 죄값으로 생기고, 마음의 편민이 죄값으로 생기고, 몸의 질병이 죄값으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죄만 용서를 받으면 영혼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평안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죄 용서받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죄를 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복함이 할 한 없습니다. 죄와 어려움은 죄를 용서받은 평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니 영혼과 마음이 평안하고 몸까지 평안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할까 하여 사람의 몸에 병이 생기는 문제를 몇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병이 나는 첫째 원인은 죄값입니다. 둘째로, 고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하시는 은총으로 병을 주십시오. 마귀 사도의 몸에 죄로는 가시가 있었습다. 바울 사도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네 주 너는 병을 위하여 약을 좀 써라” 하였습다. 그러던 디모데에게 죄가 많았습다? 아닙니다. 죄가 원인이 아닌 증상인데 병이 생기는 것은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가 일을 너무 잘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잔뜩 놀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괴란까지 습습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고만할 때에는 매리십시오. 이때에 바울 사도가 누워서 생각해보니 나는 병들 수 밖에 없는 악한 죄인네 하나님이나

볼줄고 이해 주셨구나” 하나님만 믿을 마음이 되고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예방하고 믿음을 복돋우어 주기 위한 병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병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가 낫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넷째로, 흠으로 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영생하는 새 사람을 입속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을 흠으로 된 기계임을 깨닫게 하려고 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쉬는 시간이 없는 기계입니다. 자동차는 달리기 하고, 비행기는 날다가 땅에 내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은 쉬는 시간이 전혀 없이 계속 됩니다. 심장이 1초도 쉬지 않고 50년, 70년을 뛰었으니 흠으로 된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흠으로 된 몸으로 범죄까지 하였으니 더욱 속히 낫아집니다. 그래서 고물이 되어 병이 습습다. 그러다가 죽으면 썩을 장막을 벗어 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새 사람을 입속 준비를 시키려고 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은 괴로운 것이지만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병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병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질병까지도 손해를 끝까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참된 신자들에게 첫째로, 그들의 눈이 영광의 왕을 항상 보며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을 보호하시되 강물로 용타리를 돌리서 원수의 적은 배나 큰 배를 막론하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시는 은총으로 병을 주십시오. 마귀 사도의 몸에 죄로는 가시가 있었습다. 바울 사도가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네 주 너는 병을 위하여 약을 좀 써라” 하였습다. 그러던 디모데에게 죄가 많았습다? 아닙니다. 죄가 원인이 아닌 증상인데 병이 생기는 것은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가 일을 너무 잘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잔뜩 놀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괴란까지 습습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고만할 때에는 매리십시오. 이때에 바울 사도가 누워서 생각해보니 나는 병들 수 밖에 없는 악한 죄인네 하나님이나

볼줄고 이해 주셨구나” 하나님만 믿을 마음이 되고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예방하고 믿음을 복돋우어 주기 위한 병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병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가 낫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넷째로, 흠으로 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영생하는 새 사람을 입속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을 흠으로 된 기계임을 깨닫게 하려고 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쉬는 시간이 없는 기계입니다. 자동차는 달리기 하고, 비행기는 날다가 땅에 내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은 쉬는 시간이 전혀 없이 계속 됩니다. 심장이 1초도 쉬지 않고 50년, 70년을 뛰었으니 흠으로 된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흠으로 된 몸으로 범죄까지 하였으니 더욱 속히 낫아집니다. 그래서 고물이 되어 병이 습습다. 그러다가 죽으면 썩을 장막을 벗어 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새 사람을 입속 준비를 시키려고 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은 괴로운 것이지만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병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병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질병까지도 손해를 끝까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김성록 목사

사람을 낚는 어부

(마가복음 1:16-17)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네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를 따라가는 길

어부가 되려면 적어도 물고기, 배, 물, 그물의 크기와 던지는 방법, 수영하는 법, 그리고 낚시 상황을 포착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어부일을 하러 나간다면, 아마 한 마리도 못잡을 것입니다. 배의 사동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느라 한나절이 갈지라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몇 명의 어부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막 1:17)

여러분이 일하시는 전공 분야가 어떤 것이든 모르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 과정 또는 일련의 훈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일은 다른 여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며 실질적인 경험을 쌓은 다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인간의 잘못된 방법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지도자는 많은 노력과 훈련을 통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는 아름답고 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은 이 아름다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항상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빛을 이끌어 내시니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번째 선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며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길 지 여부를 생각하고서면 큰 오해입니다(약 4:4). 크리스천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와 이 세상에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차이가 무너져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도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만을 의지할 때 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도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과 동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모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많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매사를 맡기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으로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그물을 내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머리를 써가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과 인내가 있습니다.

유일한 선택

“나를 따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아주 간단한 말씀, 그리고 그후에 나오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조직, 또는 학교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못박힌 손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존재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찬란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에는 불순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아직도 ‘왜?’ ‘언제?’ ‘어떻게?’ ‘어디로?’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늘의 부르심에 세상 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메시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복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유익한 방법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본인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지 일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따라 나서는 일입니다. 믿음이 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골 1:3) 믿음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그도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직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유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참 가치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만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입니다.

무어든지 일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입니다.

세속인들이 주는 유익

“청소부, 선생님, 은행원, 간호원, 매관공, 사립가, 의사, 변호사 등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해서 무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몇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말에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유익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죄인된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 가롯 유다 등들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영원히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상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가 유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익한 삶

“어떻게 하면 사람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님을 따라 가십시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주님의 일

“나를 따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생명을 송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만드십니다.

훈련된 제자의 삶

어부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배나바나 그런 것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다에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로 그물을 마구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져야 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며 그물을 던질 줄 아는 기술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 어부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물고기는 물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낚을 영혼은 보이

선교

수단을 다녀와서

박 형 근(수단탄기선교팀)

말라리아와 풍토병, 이방 신이 난무하는 검은 대륙에
복음과 의료 봉사는 성탄의 축복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 선교의 전초 기지인 수단에 도착하기까지는 30시간 이상의 여행을 해야 했고 '진자' 지역에 도착할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다. 원주민들의 찬송소리와 예배, 그리고 의료 활동이 하나로 이루어진 그날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수많은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복음과 의료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간 의료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전파하기 위해 씌는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

도 함께 있었다. 말라리아와 풍토병, 그리고 이방 신이 난무하는 검은 대륙에 복음과 의료 봉사는 크리스마스의 축복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약 한 알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들은 이 약 한 알에서조차도 배고픔과 가난과 고통을 이기길

바라는 것 같았다.

우리가 할 일은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다. 때문에 선교와 교육, 그리고 의료 하나가 되어 전진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역사

는 오랜 옛날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선교의 분모지로 남아 있다. 때로는 절망을 할 수도 있으나 천하보다 귀한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감시도 안주할 수 없다. 과거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이제에는 모세와 같은 젊은 이들이 뛰어들어야 한다.

교인들의 기도가 그곳으로 떠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짧은 일정 속에 진행된 의료선교 활동이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계속적인 기도로 아프리카에 하나님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선교연구원 1학기를 마치며
말씀을 품으니 세계가 보였다

이 석 진(제8기 선교연구원생)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주님께 감사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8-19)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시작했던 선교연구원 1학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12월 19일에 마쳤다.

처음에는 선교란 어떤 것인가 하는 호기심과 나도 제자를 삼아보겠다는 기대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교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임과 동시에 유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강의를 받기 전 나는 선교란 주님의 의해 선택되고 선발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임을 깨닫고 되어서 우선 주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

구나 선교를 해야만 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제 나도 주님께서 원하시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것이 이번 학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다. 선교연구원과 선교위원회에서의 봉사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던 연세든지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게는 이웃, 크게는 세계로 복음을 들고 주님의 영적 전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인도 단기선교를 위하여

1월 28일 - 2월 8일에 실시하는 인도 단기선교사에 사용할 지원 물품들을 1월 10일(다음 주일)까지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에서 기증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바랍니다.

품목

각종 의약품(비타민, 피부질환제, 연고, 소화제 등 비상약)
생필품(의류, 사탕, 문구류 등)

전도

청년부
주님이 준비하시고
함께하신 명동 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청년부가 총동원되는 명동 전도.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을 위해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다. 11월 22일 첫 모임을 가졌다. 찬양팀, 명동찬양팀, CCM 등 청년부내 3개의 사역팀이 연합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리더는 찬양팀의 권영일 형제가 맡았다. 이를 위한 준비 연습은 대부분 토요일과 주일에 이뤄졌다. 직장과 학교 생활로 모이기 힘들다는 것이 변명이라면 변명일까. 처음 모인 인원은 15명 정도. 그런데 이 행사는 청년부 내에서는 제법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권영일 팀장은 어떻게 준비해가야 할지 고민이었다. 연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네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답은 하나, 기도였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져 적막함까지 감도는 연습실에서 연합되는 무릎을 꿇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을 품고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준비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한 연습이었다.

12월 22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조차 좀더 늦춰졌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22일을 맞이했다. 청년부에서는 광

우리는 모든 열정을 쏟어 내었고
남은 힘을 또다시 명동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소모했다.

고를 평행 때렸다.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전합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명동 대한부자금을 앞에 세워 합시다.”

그날은 눈이 오지 않았다. 바람도 세게 불지 않았다. 그런 대로 건달 만한 날씨였다. 악기를 모두 명동으로 옮겼다. 그런데 우리의 절경적인 투자금을 앞이 차들로 가득차 있었다.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빠지지 않았다. 기다려야만 했다. 가슴 속에서는 무엇인가 외침의 소리가 끓어 오르는데 그것을 폭발할 수 없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7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기다리기를 40여분.

차가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악기를 자리 배치하고, 따뜻한 차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물품을 놓

고, 전도를 책갈피를 들고 우리는 먼저 명동 땅에 무릎을 꿇었다. 그후 우리는 찬양을 시작했다. 폭발할 것 같았던 외침이 찬양으로 입술을 통해 터져 나왔다. “예수 예수 예수” 찬양을 향한 찬양이 목이 터져라 외쳐졌다. 정중영을 띄워 찬양하는 대원, 손이 부르도록 치는 기타와 키보드와 드럼, 율동으로 드러나는 찬양의 몸짓. “예수 믿으세요”라며 외쳐대는 청년부 회원들. IMF라서 그런지 길거리에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지나가던 발걸음들이 찬양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찬양 소리와 예수에게로 마음을 향하고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해 뽐내 내었고 그 남은 힘을 다시 한번 명동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소모했다.

권영일 팀장은 말한다.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해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일이 마치 꿈과 같았습니다. 저는 단지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김정민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노광현 장로

당회서기



화평과 온유의 교회

1998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많은 해였지만 우리 교회의 당회와 모든 위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1999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5대 목표인 '신령한 예배, 천국일

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도록 모든 당회원들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서로 화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위원회와 부서가 원하듯, 그리고 활발히 움직이시고 그 힘이 모아져서 복음만을 전하고 행하고 실천하여 크게 부흥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문장로

찬양위원장



찬양위원회의 소망

1998년 한 해도 찬양위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9년 한 해

도 성령께서 찬양의 찬양위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리라 믿으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일 중의 하나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성우대가 되도록 서로 협력하며 모든 힘을 쏟는 찬양위원회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다시 말해 모든 찬양대원들이 '찬양의 목표가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더 나아가 찬양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올바른 찬양의 도구가 되는가'를 매시마다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중언할 뿐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구원이 되고 찬양의 찬양위원회가 되어서 영적인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병학 장로

제3교목위원장



최고의 교육 환경 만들기 위해 전력하는 새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기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제3교육위원회의 영역은 방대한입니다. 아래로는 6세 이하의 아동을 예배 중에 돌보는 탁아부로부터 위로는 70세 이상 노인의 소망부, 그 중간의 청년 2부, 청년1, 2, 3부,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당시대에 소외되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며 부흥부, 영아교육부, 사랑부, 예배대부터 여기에 속합니다.

인류 최고의 스승이셨던 우리 주님의 교육 대상에는 남다른 노소는 물론 당시대에 소외되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며 부흥부, 영아교육부, 사랑부, 예배대부터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각 부서에서 봉사할 교역자와 교사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온전한 천국일꾼 양성에 열매를 맺는 한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을 같이 되게 기도하합니다. '네가 많은 중간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지위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리라'(딤후 2:2).

찬양의 유혹에 못기어 힘의 근원을 빌설해 버리는 삼손과 같게 됩니다.

제2교육위원회의 야생마와 같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르려져 순종하는 준비를 기르는 찬양의 목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고 낯은 봉사를 마다하지 않고 국내외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 새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제2교육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5부예배(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위한 예배)에 적극 참석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정현 장로

예배위원장



예배는 성도가 제물되는 시간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슬프게 했던 지난 해의 모든 일들은 98년과 함께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희망찬 9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은 해의 복은 순환도 말씀히 맺어 버리고 새 몸과 새 마음으로 새 옷을 갈아 입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옷으로? '신령한 예배' 드리는 옷으로 바뀐 일기를 원합니다. 예배위원장의 책임을 맡고 예배시간마다 지켜보았는데, 예배시간에 늦게 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개중에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사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고 사신 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산 제사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흠이 없는 것으로 바칠 수 있습니까?

방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며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가리고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열드리는 자제로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은 절하다, 꿇어엎드리다, 가치를 돌리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열드려 절하야 할 이른 앞에 나아가면서 약속시간에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대령과 약속하고 늦게 가는 사람 보았습니까? 차가 막히는지?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대대령보다 못한 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절대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분 믿는 우리를 통해 예배받을 기회를 기뻐하십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해 순환적으로 지각하던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해에는 새해에 알맞은 새 옷(신령한 예배)으로 갈아입고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은혜받고 신 출몰하는 찬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선우 장로

제1교육위원장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자

금년도 제1교육위원회에서는 찬양교회의 설립 10주년에 맞추어 주어진 '천국일꾼 양성'이라는 중대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자'는 주제표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부서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하되 전체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의 일체성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한 초·중·고·대학을 위한 충분한 공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

시정각교제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유, 초, 소년부와 중등부는 시간과 장소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중요시하여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교사만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부서별, 또한 위원회 차원에서 교사들의 영성훈련 및 재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이 나누어 주신 내 한 하는 것으로 인해 고갈되는 능력이 없도록 계속 말씀과 기도와 적절한 교육 내용으로 충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교육실현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 차원에서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 성도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기도가 절실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력과 사랑의 수고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 장로

제2교육위원장



준마를 기르는 목장

젊은이 장로님들을 두고 나이는 나에게 폐기와 새로운 특징지어지는 알짜배기

제2교육위원회(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동안 쌓은 것은 결구이지만 이를 밀면으로 제2교육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뜻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는 나무로 비유하면 딱이 난 후 약간 영글은 밤은 초목류의 나뭇잎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초목류를 발하는 오래된 나뭇잎에는 달리 그 성실함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과 같이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동생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철부지이기도 하며,

교회 소식 / 지체들 소식

● 알 림

1. 성찬식 안내 / 오는 1, II, III, IV, V 부 예배시 있습니다.
2. 공동의회 안내 / 오는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3. 안건 : 98년 결산, 99년 예산 및 회계 개정안 심의
3. 학원전도회 겨울수련회 / 5(월) 08:00 춘천교회에서 실시합니다.

● 모 임

1. 정기대회 / 6(일) 20:10, 당회실
2. 장로 회요세백기도회 / 5(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회 월요세백기도회 / 4(일)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4. 주일오후기도회 / 오는 15:00-16:30, 갈릴리움
5. 침입전도회 목요기도회 / 7(일) 새벽기도회 후, 침입전도회실
6. 장로전도회 월례회 / 10(일) (다음 주일) 15:00, 갈릴리움
7. 안수집사회 월례회 / 오는 15:30, 교육관 212호
8. 권사회 제1회 월례회 / 6(일)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산전도회

1. 요 한 6 / 8(일) 23:00, 춘천기도원(금요일회 후 기도원행 버스 승차)
2. 마리아 3 / 8(일) 11:30, 배다나눔
3. 루디아 5 / 19(월) 11:00, 세영가든(복직관 음곡)

4. 예스대 9 / 12(월) 12:00, 압소함라방(494-8879)

5. 한 나 7 / 10(일) (다음 주일) 교구모임 후, 갈릴리움
6. 한 나 8 / 6(일) (수) 1부예배 후, 갈릴리움
7. 한 나 15 / 12(월) 12:00, 갈릴리움

● 결 혼

1. 정 훈근(경우성 장로, 여영자 집사의 아들, 15교구)과 이윤경양 (이희재 집사, 백영준 집사의 딸) / 9(일) 15:00, 울산대교회 (052-257-1901-3)

● 별 세

1. 윤순성 성도(이종순 권사 모친, 이영민 집사, 황순란 집사 조모, 13교구 교강1구역) / 12월 26일 별세, 12월 28일 장례
2. 김재진 전도사(백예순 집사 모친, 임희준 집사 장모, 5교구 양재1구역) / 12월 27일 별세, 12월 29일 장례
3. 진형철 성도(인명와 집사 부친, 황충식 성도 장인, 17교구 건영구역) / 12월 28일 별세, 12월 30일 장례

● 주 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박정진 권사 / 서울 강남구 방배3동 593-48 파라빌라 201호
전화: 597-3043

충현 중보의 창

① 새롭게 허락하신 1999년 한해 동안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천국인권을 양성하는 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소서.

② 감동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③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④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소서.

⑤ 1999년 1월 13일~14일에 있을 정기대회를 통해 새 연도의 일꾼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⑥ 주를 날마다 인하여 더욱 고령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풍성히 내리 주소서.

⑦ 1999년 2월 3일~6일까지 있을 제2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감동회를 통해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더욱 빛나는 영혼의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	김기연	1	예스대		13	변정진	6	청년2부	서술선(3)	25	김재순	5	한 나	백예순(5)
2	이유성	1	예스대		14	이경한	7	베드로		26	김형우	15	청년2부	김동주(15)
3	이교강	1	대학부		15	이화진	7	소망부		27	전진욱	19	청년1부	김용구(15)
4	한현희	1	바울	박정복(3)	16	윤 희	7	청년2부		28	이규정	6	바울	최수자(6)
5	김재애	1	루디아	박은진(19)	17	최진희	8	바울	전용호(8)	29	이종훈	6	대학부	최수자(6)
6	양영애	2	예스대	박은진(19)	18	강윤정	9	청년1부	김보훈(14)	30	임성훈	19	대학부	
7	박영주	2	바울	박은진(19)	19	김진희	14	바울	김근자(16)	31	조옥자	19	대학부	
8	박정희	2	청년1부	박은진(19)	20	김미중	14	예스대	김갑자(16)	32	김종배	3	요한	
9	한은하	3	청년2부		21	유광식	16	청년1부		33	강기숙	3	요한	
10	오영숙	3	청년2부		22	윤정연	16	청년1부		34	홍영진	3	마리아	
11	이오복	6	베드로	김정영(6)	23	배근태	19	대학부	한수연(9)					
12	박노웅	6	베드로	전백용(5)	24	정광진	19	대학부	남지연(9)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기도와 찬양으로 헤어지는 아들을 위로
지난 주일(12월 27일) 영아부에서는 146명의 친구들이 유아부로 전집했다. 아주 작고 예쁜 모습으로 때로는 미소고 울기만 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의젓한 모습으로 자라 지난 주일 아빠, 엄마의 손에 잡고 영아부를 떠났다. 그간 1년, 긴게는 2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맺어준 사랑의 띠로 감싸는 정이 들었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벌써 헤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 영아부 모두는 이날 떠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와 찬양으로 헤어지는 아쉬움을 위로했다.

99년 새해에는 더 많은 영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영아부실로 찾아오길 기도한다. (송혜경 통신원)

청년1부

지역자수련회, 새로운 열기 속에 새 출발
청년1부가 새로 꾸려지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를 맞은 청년1부는 뜨거운 기도의 열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임원들의 헌신적인 충성, 교사들이 남다른 젊은이 사랑들이 이루어지려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다.

새해를 맞으며 새 출발을 다짐하는 청년1부는 1월 8, 9, 10일 교사, 임원, 리더, 팀장 등 청년1부 약 13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자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8(일) 금요찬양집회 후 기도회로 시작될 수련회는 청년1부가 1년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주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9(토)에는 다할계 식사하며 1999년 청년1부의 모든 흐름과 진행될 일들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10(일) 저녁예배 후에는 각 사역별 역할

및 임무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기도회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청년1부가 1999년 1년을 달라나갈 준비를 마치고 교회의 젊은이를 앞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1월 15-17일에는 동기수련회로 모여 청년1부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수연 통신원)

청년2부

새해의 비전

1999년도의 새해는 청년2부의 성장의 해로 삼고자 한다. 지난 1년도 지켜 주시고 부흥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는 '사랑하며 섬기는 청년'(고전 13:13)으로서 사랑을 감당하고자 한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기도회를 강화한다. 모이면 기도하고, 이기면 사모이나 행사를 기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으로 준비하고 끝마침도 기도로 감사하게 한다.

둘째, 청년2부의 양적 성장에 전력 투구한다. 현재 100명 출석에서 금년에는 200명 출석으로 배가시키는 일에 온 교사와 학생들이 힘을 모은다.

셋째, 면리회를 활성화시킨다. 30대 나이의 공동체를 확충을 심어 주고, 면리회가 주관하는 서울역 전도를 비롯하여 병원 전도, 그리고 주간에 있는 새벽기도회 참석과 지교회 성경공부에 참여하도록 권면한다.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사와 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손경수 장로)

사진 찍으세요

99년도 신임 남녀 서리집사들께서는 제자사건에 실릴 사진을 1월 중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전교관 408호)
- 찍는 때 :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1월 10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가브리엘중창단 (가브리엘찬양대)
(찬양곡목)

- 목마른 자들이 ~ 주기도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 3부예배
트렘멜 합창단 (합창부요게스트라)
(찬양곡목)

- 알렐루야 ~ 주기도
- 주님의 얼굴 보라
- 내 선한 목자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4부예배
트렘멜 합창단 (합창부요게스트라)
(찬양곡목)

- 알렐루야 ~ 주기도
- 주님의 얼굴 보라
- 내 선한 목자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5부예배
친드양상들 (합창부요게스트라)
(찬양곡목)

-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십자가 메달리
- 만류관 기리고
-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목회사
이종성 김희순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원수 김형준 김재철 이종수 정갑진
정현민 조준환 조철수 김동화 차병준
김남태 김진식 권현선 서광진 이승학
정혜성 박노철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박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열 김영대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 어전도사
정현희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장자
배옥민 최지혜 손미희 송창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희 최영란 박영란
- 교정전도사
박영덕
- 교육전도사
박근익 현현일 한승일 김경기 송현식
김장중 조재민 최용구 이우찬 김병수
이종대 김윤식 김일승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협신전도사
유병재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본민
최효섭